

## 통합교육추진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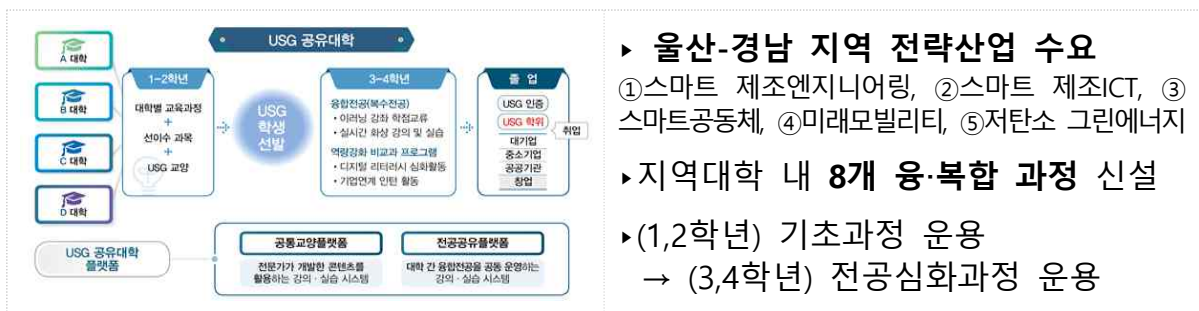
**지역을 살리고, (경남 작은학교 살리기)**  
**지역에서 배우고, (미래형 공유대학 USG)**  
**지역에서 취업까지! (LG전자, NHN, 다쏘시스템 등)**

### □ 추진배경 : 지역청년의 역외유출과 지역소멸 위기 심화

- 지역 청년인구 지역 외 유출증가에 따른 지역 성장동력 약화
  - 청년인구(19~34세) 지속 감소 추세(직업과 교육이 주요 원인)
    - ※ 연도별 청년 순유출 : ('18년) 11,763명 → ('19년) 14,056명 → ('20년) 18,919명
  - 지역 제조업생산증가율\*, 경제성장률\*\* 저조 등 지역산업 침체
    - \* ('15년) -5.8% → ('16년) -1.3% → ('17년) -4.2% → ('18년) -6.0% → ('19년) 1.2%
    - \*\* ('15년) 1.7% → ('16년) 0.7% → ('17년) -0.7% → ('18년) 0.6% → ('19년) 0.7%
-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 위기 및 농어촌 인구 유출로 폐교위기 학교 증가
  - ※ 대학 모집정원('21년 기준 55만 명) 대비 고교 졸업자 수의 부족(연 15만 명 내외)
  - 경남 초·중·고·대 학생 수 추계 ('19년) 19만 명 → ('22년) 17만 명 → ('24년) 15만 명

### □ 추진내용 : 지역 혁신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및 학생지원 강화

- 『울산-경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』 추진 ※ 5년간 국비 2,180억 원 확보
  -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자체-대학-기업-지역혁신기관의 역량결집
    - ※ 울산-경남 지역협업위원회 (18개 지자체-대학-기업대표 등 참여) / 110개 이상 기관 플랫폼 참여
  - 지역전략산업 수요기반 미래형 공유대학 구축(USG\* 공유대학)
    - \* (USG) University System Gyeongnam & Ulsan : 지역대학 연합 기초-전공과정 공유



- 기업협력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인재의 교육과 채용의 연계
  - ※ LG전자 등 채용연계형 인턴십, NHN 아카데미 등 기업주도 교육진행, 산학연구과제 등
- 중·고교·대학생 지원강화를 통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
  - 중고생 교복비(22년 일상복 구입비까지 확대) 지원 \* 연간 6만명 대상, 180억 규모 투입
  - 저소득층 바우처 사업(22년 사용기간대상 확대) 확대 \* 연간 45만명 대상, 40억 규모 투입
  -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(22년장학대상50명확대) \* 서민자녀/대학입학생/대학재학생 1,800명 규모
  - 남명학사(서울관 창원관 750명 이용) 운영으로 주거부담 해소(22년사생간담회개최 만족도조사 시행)
    - \* (22년 재사생 만족도 설문 조사) 재입사희망 93.8% 전년 대비 10% 이상 만족도 증가

- 지역사회-학교 간 협력을 통한 마을단위 교육 참여 활성화
  - 소멸위기 지역-폐교위기 학교 협력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(7개소)
  - 학교 여유허간 활용 주민참여를 위한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추진(40교)
  - '25년 고교학점제 시행 대비 학습카페 및 홈페이지 구축(63교)
  -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교육공간방법혁신 미래교실 모델학교 구축(5교)
  - 마을단위 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(2개소)

## □ 주요 성과 : '22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사례 선정(대학-지자체 협력)

- (USG 공유대학 구축) Hybrid 강의실 등 인프라 구축기업수요 교과과정 편성
  - 1기('23년 졸업예정자) 300명, 2기('24년 졸업예정자) 500명 모집 및 교과시행

구분	1기	2기	3기
선발인원	300명	500명	500명 예정
경쟁률	1.21 : 1	1.47 : 1	'22년 하반기 시행

- (앵커기업 교육채용) 지역 앵커기업의 교육과정 참여 및 취업연계 추진
  - LG전자 채용연계형 인턴십 확대 \* 정규직 채용 ('21년) 12명, ('22년) 15명
  - 다쏘시스템코리아 등 7개사 업무협약('22. 2월) \* 지역인재 교육·채용 협력
  - 전국 최초 NHN 아카데미 김해캠퍼스 개소('22. 3월) \* 지역인재 연간 50명 이상 채용
  - 메가존클라우드 등 5개사 업무협약('22. 4월) \* 경남코딩 오픈메타캠퍼스('22.9월) 시행

채용연계형 인턴십	기업주도 교육	채용확대
LG전자(43명), 볼보그룹 코리아(6명), 한국항공서비스(18명), 신성델타테크(5명), 현대중합금속(2명) 등 79명	NHN 아카데미(연간 50명 이상), 현대건설기계(17명), 현대중공업(25명), 두산공작기계(41명) 등 212명	LG전자(27명), SK이노베이션(3명), 삼성바이오로직스(4명), 효성(2명), 삼현(2명), 다쏘시스템(2명) 등 81명

- (지역사회 활력 회복) 소멸위기지역의 이주민 및 학생 증가
  -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 일자리 지원, 빈집 정비, 임대주택 건립 등 병행 추진

구분	고성 영오초	남해 상주초	의령 대의초	함양 유림초
이주민 증가	6가구 32명	27가구 83명	15가구 60명	13가구 53명
학생 수 증가	15명→28명	36명→63명*	16명→19명	18명→25명

※ 남해 상주초 '22. 5월 기준 학생 수 60명 이상(조례기준)으로 증가하여 『작은학교』 탈피

## □ 문제점 및 대책

- (문제점)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재정여건 악화로 교육협력사업 확대 곤란
  - ※ 경남도 채무비율 : ('19년) 5.15% → ('20년) 6.22% → ('21년) 8.17% → ('22년 추정) 10.4%
  - 경남도 '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(결산기준) : 도 416억 원 규모에 불과
- (대책) 지방소멸대응기금(연간 1조원) 활용 연계사업 발굴·추진 활성화
  -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('23. 1월 예정) 고려 부울경 협력 인재육성 사업 확대